

JAPAN



글. 이상정
/무림교역대표·한화협이사/

뒷간과 화장실 미학

퇴비와 분뇨의 때때

대륙으로부터 수도재배가 전해지면서 본격적인 벼 농사가 시작되자 일본에서도 분뇨를 퇴비로 사용하는 농법이 사용되게 되었다. 이때부터 땅에 용기를 묻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에 지붕을 씌운 변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분뇨를 퍼낼 때에는 다리를 떠받치던 판자를 한쪽으로 치우고 작업을 했다. 후에는 길쭉한 두개의 판자 대신에 장방형의 구멍이 뚫린 판자를 깔거나 도기나 목재변기를 만들어 그 위에 설치하기도 했다.

1960년대에 일본에 기독교 선교사로 건너간 쾨벨의 여행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일본에서는 주민들이 분뇨같이 불결한 것들을 모아 농사에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의 청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이들은 마차를 쫓아다니며 아직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말똥을 모아 밭에 가져간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여행자의 분뇨까지도 모아가며 농민들은 농가 근처 길가에 조그만 변소를 짓고 그 안에 분뇨를 저장하여 나중에 밭에 뿌린다. 남아서 버린 짚신도 모아 태워서 재를 만들고 분뇨에 섞어 비료로 사용한다.』

포르투갈에서 온 선교사 루이스(1532~1597)도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다.

『유럽에서는 마똥을 채소밭에 비료로 주지만 인분은 버린다. 우리는 분뇨를 운반해서 버려주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쓸이나 돈을 받고 판다.』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지 않는 서양인에게 일본 농민들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분뇨 취급 규칙

일본에서는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게 된 이후에 각 가정이나 공공 변소에 저류된 분뇨를 농가에 푼을 받고 팔거나 농산물과 교환하는 관습이 생겼다. 처음에는 농민들이 직접 수거해갔지만 후에는 도시의 분뇨를 수거해 농가에 팔아 넘기는 전문 분뇨 수거업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도시인들로부터 분뇨를 싼 값에 사서 농민들에게 비싸게 팔았고, 또한 다른 없자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방해까지 하여 독점 사업으로의 폐단까지 일으키고 말았다.

메이지 3년에 이르러 일본 정부는 분뇨 수거업자들의 담합을 폐지하는 조치까지 내리게 되었으며, 메이지 11년(1878)에는 처음으로 '분뇨 취급 규칙'을 제정, 시행하였다. 농민들이나 분뇨 수거업자들이 사들이는 분뇨의 가격도 그 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되었다.

- ▶ 최상등급 : 다이묘가 사는 집의 변
- ▶ 상 등 품 : 시중 공공 변소의 변
- ▶ 중 등 품 : 보통 가정의 변
- ▶ 하 등 품 : 소변이 많은 변
- ▶ 최하등급 : 감옥, 유치장의 변

이 등급은 분뇨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음식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처럼 보인다. 분뇨가 생산된 장소에 따라라도 분뇨 가격에 차등을 두었는데 보통 가정의 변(중등품)의 경우에도 서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분뇨값에 비해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분뇨값이 상대적으로 비쌌다.

수거식 변소와 분뇨 처리

분뇨가 매매되던 시대에는 수거식 변소가 일반적이였다. 이 수거식 변소에는 변소 밑에 분뇨를 저류하는 장소가 있었고 뒤에 밖으로 퍼내기 위한 구멍이 있었다. 분뇨가 다 차게 되면 사람들은 긴 자루에 바가지 같은 것을 매달아 그것으로 분뇨를 퍼내 운반통에 담았다.

분뇨를 운반하는 사람들은 분뇨통이 양쪽 끝에 달린 긴 막대를 어깨에 메고 출렁출렁하는 분뇨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골목을 나와 길가에 세워둔 우마차나 손수레에 싣고 다녔다.

분뇨 수거업자의 수거차가 운하나 강변에 도착하면 분뇨를 운반하는 배가 줄을 잇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배들은 선체 가운데 부분이 분조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풍경은 메이지, 다이쇼오시대를 거쳐 쇼오와의 시대까지 볼 수 있었으며 지금의 시부야나 신주쿠의 변화가에도 뉘새를 풍기며 분뇨를 실은 우마차가 다니고 있었다.

그렇게 수거된 분뇨들은 오차노미즈역 밑의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분뇨선을 이용해 농촌으로 운반되었다.

갈서선

메이지시대 이전의 옛날에도 성에서는 분뇨를 바다에 실어다 버렸다. 그 일에 대한 책임자를 '갈서'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오물배 역시 갈서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요즘에도 현대판 갈서선이 있어 동경의 분뇨를 바다에 처리하고 있는데 분뇨가 떠오르거나 조수를 따라 밀려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뇨에 철을 섞어 부겁게 만든 다음 바다 깊이가 가라 앉히는 방법을 쓴다.

분뇨의 폐기 지점은 동경에서 3백 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인데 이렇게 바다에 분뇨를 폐기하는 방법이 동경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가와사키, 요코하마 등 일본의 여러 곳에서 현대판 갈서선이 활약중이다.

일본인들은 이들 배를 일명 '황금함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황금함대의 배들 중에는 처리장소에 닿기도 전에 그냥 버리는 배들이 있어서 항상 갈서선이 뒤따른다고 한다.

1943년 동경의 분뇨 처리 종사자 수는 3,600명, 트럭이 380대, 선박이 536척, 손수레가 12,220대, 우마차 수가 36대였으며 분뇨 운반통이 112,680개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분뇨 운반통 중에는 특별히 소동에 실을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있었다.

당시 일본의 농가에는 외변소라는 것이 있었다.

외변소는 가옥의 본체와는 좀 떨어진 곳에 지었는데 그 이유는 비료로 이용되는 귀중한 분뇨를 저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전염병들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좀 경제적 여유가 생긴 후에는 내변소도 지었다.

내변소는 집 안의 한 구석을 막아 변소로 만든 것으로 여기서 발생한 배설물은 집 밖의 저류조에 모았다가 수거하는 형식으로 이용되었다. 이 내변소는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어졌다가 그후 도자기에 아름다운 문양을 넣어 사치스럽게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변소의 역사를 볼 때 외변소가 먼저 출현하였고, 내변소는 그 후에 생긴 것이다.

농가의 외변소는 안채와는 별도로 크게 짓고 그 안에 각종 농기구와 시비용 도구 및 분뇨 운반통 등을 쌓아 두기도 했다.

외변소 이외에도 농촌의 밭 귀퉁이에는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는 데 편리성을 더하기 위해 일시적인 저류조를 설치하였다.

처음에는 큰 항아리를 땅속에 묻어 사용했으나 나중에는 콘크리트로 대체되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밤에 집으로 가다가 이곳에 빠지는 일도 간간이 일어났는데 이 저류조는 대부분 비수기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소로서 크기는 일가족의 분뇨 배출량의 1개월 내지 3개월 분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였다.